

나주시, 설맞이 릴레이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전개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단체 등 참여해 소비 촉진 동참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 확대와 지역 상권 이용을 연계한 릴레이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관내 기업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상인회,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나주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관내 기업 제품 이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한전KDN 사

거리 일원에서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이용', '관내 기업 제품 구매로 지역 상생 실천'을 주제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은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한국전력거래소 과근원 부이사장, 한전KDN 윤희규 부사장 등 11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나주시 공직자와 상인회, 소비자단체 관계자까지 더해 총 150여 명이 지역 내 소비 회복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나주시사랑상품권 최대 15% 특별 할인 이벤트 홍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 관내 기업 생산품 애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설 연휴 기간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나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규모를 전월 대비 약 70% 증가한 11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상향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군, 설맞이 드론쇼 및 해상 불꽃쇼 선사

녹동항에서 가족과 즐기는 드론과 불꽃의 환상적인 밤

고흥군(군수 공영만)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5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귀성객과 군민, 관광객을 위한 드론쇼 특별공연과 해상 불꽃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상설 공연보다 2배 많은 1,500대 규모의 드론을 활용해 락국, 율놀이, 까치, 복주머니 등 설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쇼와 연계해 녹동항을 찾은 방문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녁 7시와 8시 20분, 두 차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드론쇼 직후에는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군은 설 명절 특별공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고, 사전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영만 군수는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군민, 관



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고자 특별공연을 준비했다"며 "이번 드론쇼가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 특별공연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연 일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녹동항 드론쇼 누리집,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2023년부터 개최해 온 드론쇼를 올해 역시 4월부터 10월까지 녹동항과 고흥읍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군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영만)가 운영하는 '산동 나누고 가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구례군 '산동 나누고 가게' 운영 앞두고 나눔 이어져

필요한 나눔물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영만 위원장은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은 어려운 이웃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산동면위원회 이송재

전임 위원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에 나눔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산동면생활개선회(회장 염옥순)에서 산동나누고가게 나눔 물품으로 사용해 달라며 쌀국수 컵라면

10상자(12개입)를 기탁했다.

염옥순 회장은 "이번 상품 기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이웃에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동 나누고 가게는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보다 풍성한 나눔상품을 구비해 오는 3월 4일 첫째 주 수요일부터 매주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전할 예정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신임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 실시

무안군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지회장 김천성)는 지난 4일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2026년도 신임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새롭게 선출된 마을 경로당 회장 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로당 회장 등록증 교부 ▲뱃지 전달 ▲경로당 운영지침 안내 ▲운영비·부식비 집행에 관한 회계교육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로당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와 지출 시 유의사항, 회계 처리 및 정산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천성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영비 관리와 정산 요령을 잘 숙지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유해환경 OUT"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

장흥군은 지난 4일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주요 변화가와 숙박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지 미부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숙 혼숙 금지 안내활동에 힘썼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고향사랑기금 활용 '마을공동빨래방 시범사업' 추진

담양군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빨래방이 문을 열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마을공동빨래방은 전라남도도 담양군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다. 고서면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성된 마을공동빨래방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고서면 주민자치회와 적십자봉사회가 협력 운영하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점을 보완 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